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五十二面

社說 歐洲政局의動向 一

近年에이르러 歐洲各國間의 關係가 險惡해잇서 世界大戰 以前의 形勢를 聯想시기든것도 事實이요 더구나 히틀러 政府의獨逸再軍備要求와 佛國의거긔對한反對는 거의妥協의 餘地를보이지안하서 佛獨間의 조치못한感情이 한層더激甚해진것도 事實이나 軍縮會議가 成功을 期待키어려우리라고는 누구든지 推測키容易하얏스나 그러나 獨逸이敢然國際聯盟의 脫退를斷行하기에 이르리라고는 豫想치못햇든것이다 勿論 히틀러首相은 屢次그만한決心을 表現해왓다。단지히틀러首相의그表現은 國內人心統一에 對한한手腕으로나 또或各國에 對한한脅威로 解釋햇슬뿐으로 그實現은 자못疑問視되여잇섯다。그런데不拘코 지금獨逸은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하기를 決定하는同時 나치스政權의確立을爲하야 議會解散을行하기로까지決定하얏고 거긔對하야 英米佛伊等四國은 善後策을講究코자 四國會議를開催햇다고 한다。이로써벨사유體系의歐洲는 一步一步崩壞의途程을 밟는것이아닌가? 아니歐洲各國은 最後一刻의危險한行動을압두고 웅즉이는것아닌가?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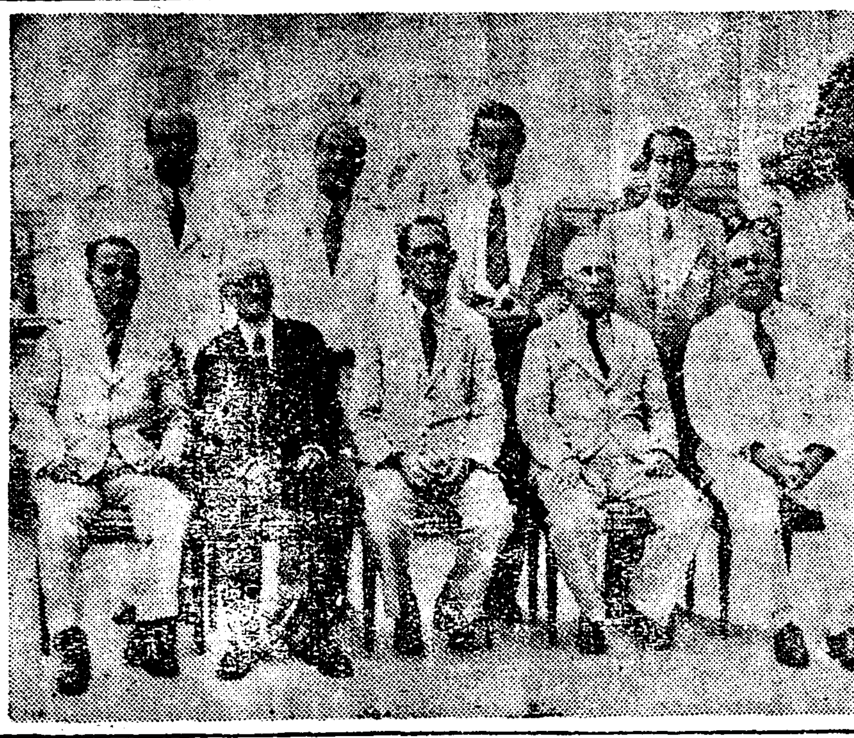
歐洲에잇서 獨逸問題는 確實히 한癌이다。이癌을中心으로해서 歐洲各國의動向은 실로全歐洲 乃至全世界의波紋을 그리지아니치못한다。그런데佛國과 그小協商諸國이 벨사유體系를 死守하려는데 對하야 伊太利는 本來부터 벨사유體系에對한 不滿을가짐으로 獨佛의感情이 激化하는反面 獨伊의 關係가 좀더接近할可能性을 가질는지모른다。問題의 나라는 英國이니 한편으로佛國의 覇權이增長함을 猜忌하야서는 獨逸을 同情할이업지안코 다른한편으로 벨사유體系의保存을爲하야는 獨逸을膺懲할도必要한만큼 그動向이자못注目된다。지금四國會議의結果라고傳하는바를 드르면 우리의推想이 過히헛되지안함을 證明하나 가장强硬히 反獨的態度를가지는것은 佛國이요그 反對로獨逸에對한好意를表하는것은 伊太利요 그中間에서彷徨하는것은 英國이다 卽佛國은獨逸의行動을聯盟理事會에 訴하자 主張하고 英國은獨逸이調印하든날 效力이發生한다는條件아래 軍縮條約을 그대로作成하자고 主張한다고하며 또伊太利에서는 아즉的確한消息이아니라 곳 밋기어려우나獨逸과가치 聯盟을脫退하리라는말까지잇는터이다

三

一步다시 나아가 考察하면 獨伊의關係도 반듯이一致하는것이아니니 그것은요前者獨墺의關係가險惡햇슬때에 뭇소리니首相이 墺地利에加擔하야獨逸을 牽制한것으로도 알수잇스며또 佛國으로도 곳獨逸에對하야軍事行動에까지 나드되기困難하니그것은 적어도지금보담더一層 事態의險惡化를要求하는것이다。더구나北歐大陸에 嚴酷이

存在하여잇다는事實은 歐洲各國의關係를 더한層複雜케하는것으로도外나치스의獨逸을쓰리어 佛國의反蘇運動이下火되야한다고하지만 서로握手하라는同盟이나 나치스의獨逸이蘇聯打倒를主張하는것이지만 佛國에對한反感도決코蘇聯만못하지안타。그럼으로다시

한번생각해본다면 히틀러首相은 複雜한國際關係를 利用하야 各國에對한脅威를이루는同時國內로잇서 나치스政權의確立을 期待하라는것이나 아닐것? 米英佛의共同戰線을打破하는데잇서 이만큼機先을制하는手段이아니라면 엇지可能할수 잇겟는가? 歐洲外交界의一部에서는 뭇솔리니首相으로하야금 히틀러首相을 招請케하야 和協을열자는議論이잇다고 한다。或者이러한 和協이成立될는지도모르겟거니와 그러치안타、더라도 或種의外交的讓和의方法이업지안할뜻하다。



【海外寫眞】 큐바革命政府閣僚 前列左로부터 우티오아가드氏(陸海軍相) 마누엘데쓰펜氏(藏相) 싼말틴(大統領) 랄로쓰 핀레이(衛生相) 무쓰하보 모레노氏(遞相) 後列左로부터 마누엘 코쓰하레쓰氏(文相) 또아퀸리모쓰 벨마쉐다氏(法相) 안토니오 쒸테라쓰氏(內相) 라미오 캬바알당카氏(大藏…)

大戰當時聯合軍側 對獨團結頗强固

英佛이中心되고米國도支持 獨逸側狼狽氣色

【聯合倫敦十五日發】 靑天霹靂과가티 突然히獨逸이聯盟과軍縮會議를脫退함에對하자英米佛伊等舊聯合軍은 多少狼狽의빗이잇섯스나 再次平靜에歸하야 各國步調를合하야 最善의對策에努力하기로 愼重한態度를 보이고잇다 一方가장信賴할만한伯林情報에依하면 突發的脫退를敢行한 히틀러政府는그後聯合軍側特히 英佛을中心으로한 聯合國側의團結連帶가意外에 强固하고米國 伊太利가英佛側에左袒하고 잇슴으로 좀豫想이틀린狼狽態度를보이고잇다 또情報에依하면 米國이英佛을支持하는態度를示하야 此點은米國의軍縮首席代表『데비쓰』氏가軍縮會議巨頭의私的會商席上에서 率直하게表明한바잇다고한다

佛國民激昂露骨 獨의國聯脫退責任重大 各新聞非難滋甚

【聯合巴里十五日發】 獨逸의聯盟脫退에對하야佛蘭西國民은 모다激昂의 色을露骨的으로表示하엿고特히全新聞紙는『獨逸은드되여假面을버섯다』고大題目을附하야獨逸의脫退를大大的으로報道하고봇을가추어서獨逸의行動을非難하야『히틀러』政府는此擧에依하야 스스로雙肩에重大한責任을負한것으로본다고하얏다 『마탄』紙는 佛蘭西、冷靜히 英、米、伊各國間의 反響을기다릴것이다 事態는極히重大하나 그러타고반드시致命的인것은안이다 라하엿스며其他各紙는 인제 救世는 『주네브』로부터도되지못하엿나 『로카르노』로도되지못하엿나 그러나『벨사이유』條約制裁規定은 아즉도全然效力을갓고 잇는事實을 記憶하여야 하고論하엿다

獨逸各新聞은 聯盟脫退賞讚

【聯合伯林十五日發】 獨逸各新聞紙는 一齊히『히틀러』首相의斷乎한聯盟脫退를 歡呼하며『히틀러』의決斷을賞讚하야『吾人은一人도 빠지지안코『히틀러』首相을信任치안으면 안된다』고主張하고잇는데獨逸軍備問題에就하야는 一切論及치안엇다

蕭條寂寞한 聯盟理事會 三空席두고開會

【電通주네브十四日發】 獨逸의聯盟脫退通報에驚愕한十四日의國際聯盟理事會는 午後五時十五分開會되엇는바 常任理事國座席中日本과 獨逸과의席은空席으로 馬蹄型『테블』은形容할수업다 寂寞한不安이 떠돌고잇다 그리고『알젠틴』國은常任理事國의 代表를賦與하엿슴에도不拘하고 今日에는出席치안엇슴으로 三個의空席을 두고 西伯利亞技術的援助案의 改正案을上程하야 審議를進行하엿다

方、吉兩將 中央에投降 方은外遊、吉은隱退

【電通上海十五日發】 方振武、吉鴻昌은 旣히中央側에 降服을申出한바 昨日北中軍事分會로부터中央에 到達한報道에依하면 方、吉은 今回投降을申出하야 爾後軍隊를 中央에改編하고 方振武自身은 軍事를觀察키爲하야 外遊하고 吉鴻昌은泰山에隱退하겟다 出願하얏다고 報告하엿슴으로 中央軍은方、吉이今回에는衷心으로 悔悟하고誠意를披瀝한 것이라고認定함으로 右出願을大體承認할意向이다

倫敦會議後 世界經濟動向 【六】

徐椿

圈外市場爭奪

圈外市場이라는것은 列强의 쁠럭圈外에 잇는 市場을意味하는것이다。이、쁠럭圈外에 잇는 市場을 說明하기爲하야 몬저 世界에 서로對峙된 쁠럭의 數를列擧해 보면 如左하다。

一、英帝國쁠럭=英本國及各自治領、植民地及스캔디나비아諸國。

二、北南米쁠럭=米國이盟主

三、佛蘭西쁠럭=佛本國、諸植民地及 佛蘭西와 密接한關係를 有한 波蘭、불가리아、체코、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等의 다뉴부四國同盟그他。

四、팟쇼부럭=獨逸、墺地利、凶牙利、伊太利。盟主는不明하다。

五、日滿쁠럭

六、쏘비에트聯邦

今日 豫想되는 쁠럭의 數는 右記六大쁠럭이다。이밧게 葡萄牙의 植民地會議、…쁠럭經濟會議도잇스나、이것을 가지고 곳, 有力한 쁠럭으로 보기에는 너무나貧弱한 感이 잇다。

◇以上六大쁠럭은 大體로보아 그傾向을 말한것이오、事實로나타난것을 말하는것은 아니다。例하면 南亞米利加는 南米에 投資된 米國의 資本과 商品輸出의 優勢로 본 말이오、南米의 全部가 名實이相關하게 米國쁠럭圈內에 確實히 들엇다는 말은아니다。

◇따라서 圈外市場이라는것은 (一)現在 確實히 前記六大쁠럭圈外에 잇는、諸地域、(二)또는 各國內에 잇스면서도 그宗主國과의 關係가 그러케密接치아니한 諸地域、(三)또는 다른 쁠럭圈內일지라도 侵入할 餘地가 잇는 地域等等의 三者를 包含한 諸地域을 意味하는것이다。例하면 一의 例로中國이 잇고、二의 例로 南米諸國이 잇고、三의 例로露國、加奈陀、濠洲、印度가잇는 것이 잇다。그런데 中國가튼 나라는 列國이 各各、침을 흘니는지는 오래나、列强의 勢力均衡上、獨차지할수가 업서 남겨노은것이나 「그나머지 諸地域의 大部分은 말하면 부스러기市場으로서、世界的으로 景氣조흔時代에는、내여노코 別로 도라보지 안튼 市場이다。그러나 不況의恐慌을 經驗한 列强은 이들 부스러기市場에도 注目하게 되것이다。

◇圈外市場의첫재로 꼽을것은 中國이다。中國은 露國、印度와 아울너서 世界의 三大市場의 稱이 잇다。그러나、露國은 獨立한 힘이 잇는나라요、印度는 英國의손안에 든 市場이오、完全히 남은 大市場은 中國뿐이다。따라서 列國의 觀線은 自然히 中國으로 集中 할수밧게 업다。特히 最近에 와서 列國의 活動은 中國을 目標로 猛烈化함을 본다。(一)米國의 對中棉麥借款、(二)米國카치쓰飛行會社와 南京政府와의 間에 飛行機賣買契約、(三)米中間의 航空契約、(四)奧漢鐵道敷設費에 關한 英의 對中借款、(五)英中間의 福建省 浦厦鐵道借款、(六)伊太利、獨逸의 對中飛行機 그他兵器借款等은、다、英米獨伊等의 中國市場占領의手段이다。

◇다음 露國은 勿論、單獨으로 쁠럭을形成한 나라나、아직도 外國으로부터 機械를購入할 必要가 잇는나라다。따라서 列國은 露國에 對하야 機械를 供給하기를 競爭한다。英國이 一旦、斷絶되엇든 對露通商關係를 速히 恢復한것도、또는 米國이 露國을 承認하고저하는 것도、結局은 露國이라는市場을 제손아레에 너흐려는 努力의表現이다。그他、中央亞細亞諸地와 南米諸國은 日英米三國의 爭奪의 標的이되는것이다。(續)

軍縮一般委員會 無期休會될形勢

十六日會議선一週休會可決? 今後再開는疑問

【聯合주네브十五日發】 獨逸의國際聯盟及軍縮會議脫退로今後軍縮會議를 續行할가안할가를決定할指導委員會는 十五日午前에繼續하야 會議는長時間에 亘하엿스나 午後에도거듭헨더손議長의 居室에서續開되엿는바 意見이對立되야 妥協案으로서 結局十六日에開會할 一般委員會에서 獨逸의會議脫退로發生한事態를 如何히處理할것이냐를 愼重考慮할餘裕를與하기를要望하고 一週間休會會議를 提出하게되엿는데 無條件으로此를可決하게될모양이다 그리고短期休會에 入하는同時에 各國代表도『주네브』로부터歸還하려함으로 一般委員會가一週間休會後再開될는지 疑問이다 卽各方面의意向은 無期延期를希望하고잇고伊太利代表는 十五日午前會議에서 無期休會를 强調하고此에對하야『체코슬로바키아』뻬네쉬代表는 會議續開를主張한바大勢는 아직何等好轉이 豫想되지안음으로 無期休會에 기우러지고잇다

大湊旅順에 飛行隊設置

【聯合東京電話】 從來各要港部에는 當分間 海軍航空隊를置치안키로되엇든바 十六日軍令部條令으로서 舞鶴、鎭海、馬公에는 置치안으나 來十一月一日부터 大湊、旅順兩要港部에 飛行隊를 設置한다고發表하엿다

第四次五相會議

【聯合東京電話】 第四次五相會議는 十六日午後二時부터首相官邸에 開會되야 齋藤首相 高橋藏相 荒木陸相 大角海相 廣田外相出席 最初廣田外相으로부터 獨逸의國際聯盟에對한 軍縮會議로부터의 脫退에對한情報를報告하고 그다음여러가지 意見을交換한後 帝國外交에關하야外交 國防 財政을三位一體로한 國策樹立에對하야 隔意업는意見의交換을行하얏는데 第四次會議結果는注目에値한者잇다

獨、國聯脫退에對한 外務省의聲明

【聯合東京電話】 外務省에서는 十六日駐獨永井大使로부터獨逸政府의 『國際聯盟及一般軍縮會議脫退에關한 公報에接하고 獨逸政府의態度에 對하야다시다음과가티 聲明하얏다

獨逸의國際聯盟及軍縮會議脫退는 주네브에 集合된 聯盟及軍縮各代表及 歐羅巴各國에 對하야 不少한衝撃을 與한것이다 그러나最近軍縮會議에在한 獨佛及此를 支持하는英米等의關係로 獨逸이 何等의決定的行動에 出하지안을가하는것은 一部에서 觀測하고잇든바 日本으로서는 日本의對外根本政策은 去三月에決定된聯盟脫退에 依하야 指針이指示되고잇고 後日本政府及內田前外相 廣田外相에依하야 자조 聲明된方針을 遂行할뿐이다 … 聯盟及軍縮會議脫退하게되엿다 … 日本으로서는 相當한 打擊이라고 안할수업다 그러나日本의 聯盟및軍縮에對한態度는 直接變更하고何等의理由도 업고 따라서 現在日本으로서는 먼저成果를注視하고 今後의推移를嚴重히 監視하려함에잇다 萬若그것이 歐洲一部의 新聞紙에傳播된 所謂日獨間에何等의諒解 …

【別報】【聯合東京電話】 獨逸의聯盟及軍縮會議脫退에 對하야는 外務當局은 … 去三月의聯盟脫退以來 日本政府가所謂 『몬로』主義 外交方針에 … 表示한것이라하야注目된다 그리고 日本으로서 獨逸의聯盟及軍縮會議脫退에對하야 가장 注意할點은

一、獨逸의 聯盟脫退에關하야 事實上으로 『벨사이유』條約의廢棄를敢行하야 歐羅巴에 … 所謂破棄運動에 … 할 方針이다

一、右獨逸에對한危機說、英、米、佛、伊各國에 軍縮會議에接하야 一九三五年의 軍縮條約滿期에 對한 影響을 與할것이 아닌가 하는 二點으로 歐羅巴의不安을增大 … 歐米列國의 … 日本外交上의 … 가져다고는할수업슴으로 一方 어떠케지든지 … 傍觀者의立場을 堅持하는同時에 이歐洲政局의 動搖에對하야 日本으로서는 國際的保全을 堅固히 保持하려고今後의過程을 注目하야 有効外交方策을 實行할方針이다

佐伯灣에도 航空隊設置

【聯合東京電話】 海軍에서는 別項과如히 來十一月一日부터 大湊旅順兩要港部에 航空隊를 設置하기로되엇는데다시 近近大分縣의 佐伯灣에 航空隊를 設置하고 同隊司令에는 別府明朋中佐가 補하게될터이다 大湊 軍航空隊司令에는 海軍中佐吉良俊一氏가 內定되엿다

軍縮障碍除去에 米國은一層努力 一般委員會解散反對

【聯合워싱톤十五日發】 米國國務省當局은 歐洲各國政府가 獨逸의軍縮會議 脫退에伴하야 重大한事態에 應할만한外交的行動의 決定에 努力하리라는 情報와 相俟하야 獨自의對策을 考究中이바 獨逸今回의擧는 全軍縮運動을 危殆케하는 重大挑戰이라하야 危險에는不變하나 只今에잇서서明確히 策은되지안엇다 如何間 『루즈벨트』大統領이 軍縮을 重視하는關係上 米國當局이 軍縮의 障碍를 除去하기爲하야 一層努力할것은 明瞭하나 十五日도 『제네바』에서의 軍縮指導委員會에 關하야서도 『데비스』代表에 對하야 一般委員會의 短期休會에는 贊成하나 最終的散會에는 斷然 反對의旨를 言明하엿다

『나치스』의 獨裁 國內各派의 協力은不可

【聯合伯林十四日發】 十四日午後 獨逸政府는 國際聯盟及軍縮會議脫退에對하야 全國民에게 宣言을個人으로 發表하얏는 宣言과 相通하는것으로서 現在의 國內의 意見의 相違點을 除去할手段으로서 各派의協力이 不可하다고한點에對하야 一致한點을 强調하엿다

伊國의脫退說 無根이라否認

【電通로마十四日發】 伊太利政府最高權威側에 記者가듣은 바에依하면 伊太利가獨逸의뒤를 바더軍縮會議를 脫退할것이라는 巴里側의報道는 全然無根이라한다

印棉時勢慘落으로 『봄베이』市大混亂 印政府具體的新提案?

【電通싱라十六日發】 『봄베이』市勢는慘落하야 中에는破産者도續出하야 棉作者의金融機關은取付에遭하야 이에『봄베이』株式取引所와如한은 今月十六日부터 印棉出廻期에入하야 日本側의印棉不買가何時緩和될는지 不明한때문에 棉受渡가危殆한等同市의 混亂은 豫想以上이다 如斯한狀態에 印度政府도 놀나서十七日에는 只今까지의 沈默을破하고具體的提案을하야『데리』에 … 十七日의 原則的決定에到達하고십다고焦慮하고잇다

宋子文飛機로 蔣介石을訪問

【聯合南京十四日發】 行政委員長宋子文은 蔣介石과會談하기爲하야十四日午後 飛行機로 南昌으로向하얏는데 二泊한後 直時歸還할터이다

新渡戶博士逝去

【電通밴쿠버十五日發】 太平洋會議日本代表로서 去六月渡米한新渡戶稻造博士는 其後健康을害하야밴쿠버에서 入院中이엇든바 左肺下에膿腸을起하야 十五日切開手術을行하얏든바老齡과衰弱이甚하야 容態急變하고十五日午後八時四十五分드되어逝去하얏다 享年七十二歲

人事·集會

▲池田淸氏(警務局長) 金剛山으로부터十六日朝歸任

▲遞信局 京城釜山平壤元山各分掌郵便局工事課長會議는十八日부터二十一日까지同局局內會議室에서開한다

▲川島軍司令官令息今朝逝去 川島朝鮮軍司令官 令息一義(二六)君은病으로龍山官邸에서療養中十六日午前一時十分逝去

夕刊後의市況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大新	[illegible]	七高
鐘新	[illegible]	不變
日産	[illegible]	一〇高
東新	[illegible]	二〇高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後引

當	[illegible]
先	[illegible]

胃腸 消化機能を助長し、消化不良を去り食慾を催進し、榮養を增す タカヂアスターゼ

タカヂアスターゼ는.單히澱粉質뿐의消化酵素가아니라。

다까지아스다-제는·單히澱粉質뿐의消化酵素가아니다。다까지아스다-제의發見當時는·單히强力한澱粉消化酵素로認定바든것도·그後에諸學者의研究는單히澱粉質뿐아니라·蛋白質脂肪을비롯하야 約二十種되는 消化酵素로된獨自의消化酵素인것을밝히되엿다。一方臨床上에잇서 藥效도 普通麥酒芽性지아스다-제와는比較치못할差異가存함을認定함에至하얏다。
單히澱粉質消化의 性能에就하야는 普通지아스다-제와는 明瞭한差異를存함即 다까지아스다-제의有한消化力强大·强度一定·效力不變等의特長을除外하고또

1· 다까지아스다-제는·耐酸·耐아루까리 性强大한것
2· 茶·컵퍼-·紅茶等의飲用에依한 惡影響을毫치안는것
3· 食鹽·醬油의添加에依하야다까지아스다-제의澱粉糖化力은顯著히促進되는等으로써밝히麥芽性지아스다-제와其性能價值의差異를鑑別할것이다

(說明書進呈) 種各劑錠、末粉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SANKYO

盜汗에 (グ…ナール)
特히衰弱·肺病者·結核患者……者의盜汗에良果를奏함·大多數는一乃至五日의服用으로消失함을수잇다
東京·室町 三共株

大京城候補地선보기巡禮 【十四】

乙丑年水害後로 赤貧化하여진 東幕

汝矣島는 造船業으로 일홈잇고 唐人里는 風景으로 有名

마포(麻浦) 동막(東幕) 일대는 동리의 력사도 오래거니와 단순한포구로만 일홈잇는곳이 안이다 그곳동리일홈이 말하는바와 가티 토정리(土亭里)는 토정선생 현석리(玄石里)는 박현석선생이살엇다는곳이다 이런분들이살어온만큼 이곳에는 왜사람이나 상인들만이살은곳이 안이고 상당이부유하고 지위잇는사람도 다소 살어왓든것을 알수잇다 년전까지도 강변풍경을 즐기는부유한사람들이 적지안케 살엇으나 을축년 장마에 천수백호의 가옥이 침수되면서 모다 시내로 이주하야 오늘은 돈잇는사람이라고 남은것이 업시되엿다 이때문에 그들부유한사람들뒤에서 생계를 니어가든사람들도 더살기힘들게되엿다

×

이가치하야 을축년대홍수에 몹에잡겻든 이후 돈잇다는사람들은 한숫배커나가고 빈한한사람들만남은 오늘에 강변으로는비다섯칠되는 방축이 놉히 둘려차이게되엿다 그런데 이방축밋헤로 래왕하는 부근 주민중에서 색을 갈려본다면 다소 자미잇는것이잇다 즉 봄가을로 시내에 흘러거 젓갈을 가지고 단니는 일장사부인네들과 기름장사부인네들을 만히보는데 이들은모다 이곳에우거하면서 강변에서 젓갈을사 가지고 시내에 팔러단니는것이다 그들은 본시이곳 사람들만이안이고 대개 황해도방면사람들로 농사를짓든 틈틈히 서울근처와 동막부근에 몃달동안동냥부치고 잇스면서 장사를하여가지고 돌아가는사람들이다 그들의 수효가수백명은 된다고하니 놀라지안흘수업다 그러고수철리(水鐵里)방면으로가면서는토착민들은야채장사하는사람들이만타

×

그러고강건너 여의도(汝矣島)의 조그마한동리! 이곳은 비교적생활의근거를가진사람들이산다 녯날 천하든 말들을으면고려(高麗)시대에 구양보내는 사람들을모아두든곳이라하는데보통 듯지못하든성(姓)을 가진사람들이산다 그런데이곳은 녯날부터배짓기생업을삼아오는도역시 배젓는곳이되여잇서재목을쌓거내이고 못을치는 소래가개ㅅ벼에는 쉬지안코 울려오는것도 이곳의 한가로운 녯풍경이라 하겟나 그러나 바로이초낙건너머당인리(唐人里)에는 근래에 대건물이서잇서 경인선기차들을 타고 잇는것이잇으니 어는 경성전긔의 발전소이다 그러고 발전소에서는 간단업시긔계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잇다부근에자부한 하니 부러잇는녯날식 초가막사리를 위압하는듯이

×

그런데 압날로 이곳은발전되여지는 잇다 동소문밧이나로량진방면가튼 발전은 못본다해도 시외의 주택지로 강변의풍경을 낭히 잇을것은 틀림업다 현재로서는 교통이 그러편치못하다고하나 긔동차가 당인리까지들하여잇서 부근주민이 만히유용이 리용하고잇는터이데 압흐로다면 시내에직업을 가진사람으로 이곳에주택을가지어도 그리큰불편은 업슬것이다 시내의떠들과연기에 숨이맥혀 하는사람들은 이부근으로도 하로산책을해보다 칭수한산수에 청늑어하는사람이 반드시만흘것이다

×

이것으로서 교외지순례는 한바퀴다틀잇다 뜻가튼 순례가 못된것이 유감이나 이로서끗막는다 (사진은동막)

貨物自動車에 老人轢死

【陰城】 십사일오후칠시에음성군음성면 겁우리(陰城郡陰城面甘雨里) 고개에서 소장사(牛商)하는칠십로인이무참히도 화물자동차에 치여죽사한 사실이 잇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음성군금왕면 내곡리(陰城郡金旺面內谷里)무극산미조합(無極產米組合)에서 사용하는화물자동차가음성으로부터 무극을향하든차 동군음내리에 거주하는 박성은(朴聖殷)(七0)이가 소느마리를몰고 음성으을 향하여 오다가 소들이 놀내엿든지 창황망조이 피하는순간에 무참이도 자동차와정면충돌이되며 현장에서 즉사하고말앗다하는데 이것을조사키 위하여 당지서원 일동이 총출동하여현장조사를 하는중인데 아즉운전수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조사중이라한다

◇「크레인」부인◇

米코大學內 朝鮮圖書館 後援會主催로 繪畵展覽會開催

十九日부터 東亞日報社에서 花說等書籍도 陳列

미국유목에잇는콜럼비아대학의 조선도서관을 후원하기위하야동후원회의 주최로 동아일보루상에서 권라남도순천(順天)의선교사『크레인』부인의 원조로회화전람회(繪畵展覽會)를 열리라한이미보도한바어니와 권과권람회는오는십구일부터이십일일까지사흘동안개최하리라는바이번전람회에는 조선일본 미국의풍경과 풍속도를 진렬하고조선화보(花譜)와화설(花說)·서적 등도 진렬하는데 이번 전람회의 수입은 전부 조선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쓰기로 되엿다는바 조선화보(花譜)와화설(花說)등은 이 전람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것이라 한다 미국에잇는조선이동포들로조직도여잇는바압호로오게될동안에 이만권의 서적을모으기를표준삼고 활동중인바 현재에 모인책이 약오천권밧게 아니되여 권도가 요원하므로 일반유지의 성원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湯崗子驛에 反滿軍襲來

◇前田巡査는負傷

【奉天十六日發】 십륙일오전두시에 만철본선 탕강자역(湯崗子驛)에 두목이 누구인지 알수업는 반만군(反滿軍) 수십명이 습격하여왓슴으로 그정거장취체를 마터보든 안산(鞍山)경찰서 전전(前田)순사는 곳안산역에 급보하는동시에 역원과 협력하야 총을들고 대전하야안산경찰서로의원대 률원(栗原)경부보이하 오십명이 현장에도착되기전에 토벌들을 격퇴하얏다 그러고 전전순사는 이싸움에올은편다리에 총상을 당하얏는데 생명에는상관업스리라한다

極東風雲急迫과 外人客來往激增

朝鮮『호텔』에 만平時보다三倍

當局은間諜을監視

일본이 국제련맹을 탈퇴한이래 극동에서만주문제를 놋코 일로(日露)일미(日米)일중(日中)의 관계가미묘하여지고잇는바최근에 이르러서는 독오(獨墺)의관계가험악하야지고독불(獨佛)의 관계가 우울하여지려니 마츰내 군비(軍備)문제로 파란을 거듭하든『나치스』의독일은군비축소회의(軍縮)를반대하고국제련맹까지 탈퇴하여버려 세계의풍운은 급박한속에 더욱바차(拍車)를 구르는 형세를 이루고잇는데 다시만주를 중심 으로한 극동문제에 대하야서는『쏘베트』로서아의 북만철도(北滿鐵道)에대한일본의『괴문서』(怪文書)라고일컷는 문서의발표로 새로히 긴장한 시국을보이고잇는바 국제정국이 이와가치긴한됨을 따라 서여질드시켱기는 시국의 최실에는마스크를얼골에 쓴『스파이』군(群)의 조약이더욱 심하야 진다 그러하야각국의『스파이』가만주의넓은들에서게각금『×27』호의묘기를나타내이고자하는데그중에도극동문제에 큰관심을갓는미국의『스파이』와『쏘베트』로서아의『스파이』가더욱만타는바 그중에도놀라운것은 로서아의 그것이라한다 로서아측의『스파이』로는 로서아인 중국인이 잇는외에 조선인『스파이』의암중활약이 가장긔민하다는바 그들은 전만주도처에 널리여 긔밀정보의수집과긔밀문서의절발에 눈ㅅ독을 드리여『카페ー』와식당의사용인으로 가여들은물론 철도종업원 각관청의 사무원『뽀ー이』『타이피스트』등 가지각색에 박지는곳이업시 석겨잇서 관동군(關東軍)에서도 골머리를알코 그들의『생택』,『리스트』를만들어엄중히감시하는중인데 권하는소식에의하면로서아에서는『모스코ー』에 만주국괴회선전대본부를두고『합빈』에지부를 두어스파이들을늘어가지고 만주국의 파괴를도모한다고한다 이와가치 맹렬한만주의『스파이』전은 한줄기를격한 조선과 나아가서는 일본내지에까지 연장되여 최근 만주에서조선을거쳐 일본으로일본에서조선을거처여만주 상해(上海)등지로 드나드는수상한 외인이벗적늘어 당국의눈을이상히 빗다고잇는바 여기딸하조선호텔』의 체류객의투숙하는 외국인손님이역지 격증하야종래에는 일개월평균 이십명내외밧게 아니되든 외국손님이 요지음에 이르러서는 매월사십명으로 내지륙십여명이되는 달까지잇서 평시보다 삼배에갓가운격증 상태를보인다고 하는데 그중에는상인(商人)이로라고하는『아메리칸』이 제일만코간혹가다가는 정치부로카ー』를하는 백계로서아인도잇다고한다

말이놀라뛰여 二名重輕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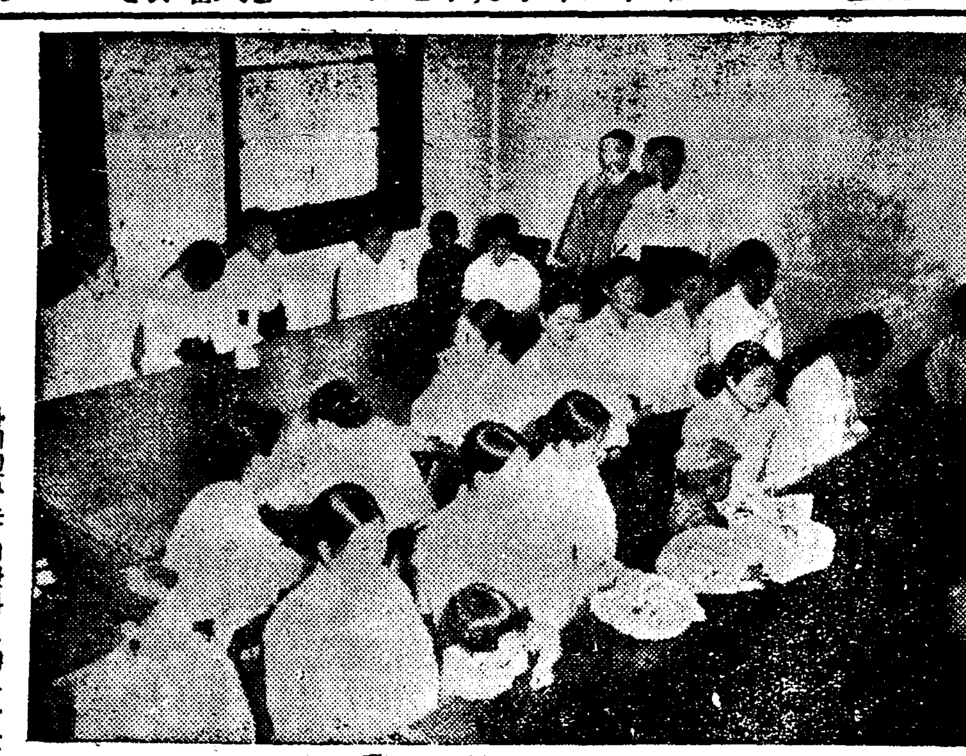
십오일오 후일곱시십오분에 시외아현리(阿峴里)산(山)삼번지 원승모(元承模)(三0)는 마차를 몰고 시내 죽첨정(竹添町)방면에서 시외 신촌(新村)방면으로 가든중 그동리 삼백이십오번지 압헤서 자전거종소리에 말이놀래서 뛰고덤비는바람에 시내충신동(忠信洞)김득문(金得文)의 안해 지씨(池氏)(三六)는 넘어저서 전치이십일간의 중상을당하고 그외에한명은 전치아주일간의중상을입엇다한다

今年가튼大豊年에 獨凶맛난水災民

慶南災地五千餘町步水組畓

三萬作人의生途漠然

금년은 소화오년이래의 대풍으로가는곳마다 논벌에는 벼갈하는농부들의 소래가들리고 잇으나지난 녀름의큰수해로 뼈압흔피해를입은 삼남지방중에도 함안(咸安)창녕(昌寧)창원(昌原)김해(金海)등지에는천리장야의 기름진전답이 벼한폭이 남어잇지아니하야 황폐한 광경을일루고잇다 엇던곳은 엇해써지를이싸지지아니한곳도 잇는바 함안수리조합의 전동리 면쥐일천일백여정보와령남(靈南)수리조합의 천여정보와 하남(下南)수리조합의 일천오백정보와 기타대산(大山)수리조합의 천여정보와 대처(大渚)수리조합의 일천팔백정보등 약 오천여정보는 금년내로 복구공사를 하지아니하면래년에도 농작을 할수업는 형편인데 이속에서 근근히소작농을 하야가지고 생활하여오든 륙천여호의 삼만여명 주민들은 년농사을하고 못하는것은 고사하고 눈압헤닥치는 엄동설한을 코압헤두고 파동할 긔약이묘연한현외라 당장먹을것이 업서굼주리어 허덕이고 잇는중민이만허총독부 당국에서는 수리조합 복구공사를 곳착수하야 그들을 구제하리라하나 우선 먹을것이 업는주민들에게 그것으로혜화불에짐구어먹는것의 구제가되지 안을지모르겟다한다



◇文化刺繡講習開講◇

아름다운가정은 아름다운 실내장식에로 이런케 자기의가정의 미(美)에 대한이식이 강하게되여가는것은 근래일반 가정부인의 공통된경향이다 이때에경성녀자기독청년회주최본사학예부후원의문화자수강습회는이러한 일반적경향에영합하야사십여명의 다수한 지원자를어더가지고 십륙일 오후한시에정과가티 종로녀자 청년회관에서 개강하엿다지원자는 시간과 로력을극단으로합리화한 문화자수 그것의특색이더욱 그들의 요구에마젓든지 신구가정을통하야 거의각방면의 부녀자 석겨잇섯다주최자측에서는 예기치못햇든 이성황에깁히 감명을밧고 현재의장소는 협착함으로 다시남자청년회의 소강당을 비러가지고지원자를 더만히수용하기로 되엿다 시원이 느커서도 지원자만잇스면지금의 배이상은 수용할수잇슴으로 압흐로몃를동안 오후한시부터 네시까지 계속하기를바란다고한다

平壤體育會主催 『스폰지』野球

十七日平醫球場에서開催 決勝戰은二十一日

【平壤】 관서체육회 (關西體育會)주최와 본보평양지국주최의체육데는 이십일과 이십일일에개최될러인데 그중『스폰지』야구는 가입단체가 만어십칠일오전구시부터평양의학전문학교구장에서아래와가튼 상대로 예선을하고 이십일에 경구야구하는날에 결승하기로되엿다 또대회임원은아래와가치임명되엿다

▲大會任員

會長 曹晚植 創會長 趙鏈完

本部 △金炳淵△金建亨△宋錫僕

二、陸上競技部

審判部△崔應天△孫洪球△裵瑢求

추래審判△孫洪球△金基琉△裵麟探△朴亨根△韓鼎浩

필드審判△裵瑢求△楊秉祉△姜溯侑△金基淵△金有聲△李隆三

監察員△林允祥△金贊命△盛明淳△李星七

出發信號 崔應天

計時 △李錫贊△車在鎰

記錄 △金晩鎬△金有聲△李仁朋

召集員 金有善

通告員 張成寬

救護 △康德熙△吳德七△石履元△李尙斌

二、排球部 △金光信△金瑞淵△三宅△邊在頒△方元道

三、籠球部 △崔能鎬△車在鎰△前田△金成峯△嚴淳寬△金元變△金光連

四、庭球部 △韓鳳祥△石井達也△竹中韓一△高蒙惠△馬庚變△鄭元錫△赤木△金賢淑

五、野球部 △李錫贊△宋錫燦△坂谷△正木

▲野球相對者(硬球)

1 平壤府 / 2 樂浪 / 3 殖產 — 決勝

▲庭球相對者(軟式)

1 高橋 / 2 無盡 / 3 兵友 / 4 三千里 / 5 土木 / 6 友商 / 7 南浦 — 決勝

各道對抗庭球 京畿優勝

◇京城惜敗◇

軟式庭球各道 對抗決勝戰은京畿對京城試合은 十六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行한바 다음의成績으로 京畿軍이優勝하엿다

【決勝戰】

【京城】 【京畿】

○{張元珍 孫觀星} 4―3 {殷秉律 權福仁}×

【單式】

×朴觀善2 {13―11, 1―4, 4―1, 1―4, 0―4, 2―4} 4權福仁○

×崔永生2 {4―1, 1―4, 1―4, 6―4, 4―6} 4殷秉律○

中等軟式庭球 金.梁.優勝

中等校軟式庭球戰은 十六日午前八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行한바 第三回戰까지의經過는 旣報한바와갓거니와第三回戰부터의 戰績은다음과갓다決勝戰에는 養正高普金梁組對徽文高普閔李組의 對戰으로結局4對1로徽文敗하니養正組凱歌를부르다

【第四回戰】

×京中(中村 村林) 1―4 師範(野田 金古)○

×養正(李允鎬 梁豆錫) 2―4 徽文(閔丙純 李鵬熙)○

○中央(李容國 孫泳洙) 4―2 光成(金敬江 王錫甲)×

×海州(林承佐 李鐘元) 1―4 養正(金振玉 梁在景)○

【準決勝戰】

×師範(野田 金古) 0―4 徽文(閔丙純 李鵬熙)○

×中央(李容國 孫泳洙) 0―4 養正(金振玉 梁在景)○

【決勝戰】

○養正(金振玉 梁在景) 4 {?―1, 4―0, 1―4, 4―0, 4―2} 1 徽文(閔丙純 李鵬熙)×

陸上競技 姜君萬米에快走

姜孃新記錄作成

一般男女陸上競技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行한바 女子二百米競走에 平壤女高姜孃信鎬이從來自己가保持한記錄을突破하야 二十七秒六의驚異的新記錄을作成하엿스며 成南의姜長春君은 强豪還龍漢君을 二十米餘를처치고優勝하얏다 (締切時間까지의經過는아래와갓다)

【女子五十米】

▲A組 1•松本(二高女)七秒二 2•鄭福蓮(大邱女高) 3•金用秀(平女高)

▲B組 1•金明先(大邱女高)七秒二 2•崔仁愛(平女高) 3•西田(二高女)

▲C組 1•太田(釜山女高)七秒三 2•高崎(一高女) 3•樋口(元高女)

▲D組 1•玄桂淑(京師)七秒 2•竹內(元山高女)3•張貞愛(京女高)

【一般千五百米豫選】

▲A組 1•金德明(黃海)四分三二秒八 2•崔光鎬(아俱)3•李一成(平北) 4•金周錫(養正) 5•陳敬寬(鐵道)

▲B組 1•李榮白(釜山)四分三二秒四 2•丁命成(遞信) 3•南起龍(全南) 4•朴龍福(黃海) 5•安世煥(光中)

▲C組 1•吳承默(咸南)四分二九秒八 2•劉俊燮(江原) 3•金湘熙(黃海) 4•白圭福(鐵道) 5•金正澤(春川)

【一般投砲丸決勝】1•小林(咸南)一一米一〇 2•松崎(高商)一一米〇一 3•土肥(羅南)一一米 4•藤原(遞信)一〇米五六 5•李玄日(大邱師範)一〇米三九 6•金潤根(大邱農業)一〇米二六

【一般百米第二豫選】

▲A組1•矢野(本府)一一秒2•金長律(鐵道) ▲B組 1•韓喆鎬(遞信) 一一秒五 2•淸水(京師) ▲C組1•趙啓元(忠南)一一秒八 2•村田(本府)

【女子五十米第二豫選】

▲A組1•松本(二高女)七秒二 2•樋口(元山高女) 3•太田(釜山高女)

▲B組 1•玄桂淑(京師)七秒一 2•崔仁愛(平安高) 3•張貞愛(京女高)

【一般千五百米決勝】

1•金德周(黃海) 四分二五秒 2•李榮白(釜二商) 3•吳承默 4•劉俊燮(江原) 5•李一成(平北)

【一般二百米第二豫選】

▲A組 1•金長律(鐵道)二三秒六 2•岩崎(鐵道)

▲B組 1•朴寅碩(慶南)二三秒九 2•徐泰源(一高)

▲C組 1•秋田(光中)二四秒二 2•西(鐵道)

【女子二百米리레ー豫選】

▲A組 1•大邱女高팀 二七秒八 2•平壤女高팀

▲B組 1•釜山高女팀 二七秒八 2•二高女팀

【一般中障碍決勝】

1•金煥民(아俱)一分 2•深津(鐵道) 3•安達(龍中) 4•森(遞信)

【女子三段跳決勝】

1•相原(京師)一〇米六二 (朝鮮新記錄) 2•李教獻(遞明) 一〇米二五 3•赤崎(一高女)九米六五 4•山下(二高女) 九米四八 5•內田(一高女)九米三二

女子籠球經過

【第一回戰】

【勝】		【敗】
○大邱女高	…… 棄	女演習科×
○第二高	33……19	釜山高女×
○第一高女	50……13	大邱高女×
○京城女高	38…… 9	平壤女高×

【京女高】		【平女高】
李英珠 金金淳	F	金寶福 金鶴子
張貞愛	C	李寶順
趙蓬子 白洪錦	G	朴貞吉 金禮實 張淑愛

18 FG 3
2 FT 3

男子中等卓球 光成 金君優勝

卓球男子中等決勝戰은 十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實業學校에서行한바 다음의成績으로 光成高普金永煥君優勝하엿다

【準決勝戰】

○金永煥(光成)3―1柴田(京商)×

○周錫洪(釜商) 棄 徐洙根(釜商)×

【決勝戰】

○金永煥(光成)3―2周錫洪(釜商)×

祝禮山地方紹介版發行 (無順)

金曜會

禮山挿橋勞働相互會 會長 尹敬龍 副會長 李鍾振 財務 鄭澤春 監査 李澤夏 金德相

禮山釀造株式會社 社長 李鍾憲 專務 安鍾遠 取締 柿內惠次郎

禮山郡廳職員一同

東一銀行禮山支店

忠南製絲株式會社

光時大峰金號 主 金智泰

禮山驛前 ◎ 株式會社運送店

朝鮮料理 逢春館

全州專賣支局禮山出張所職員一同

禮山穀物組合 組合長 成觀永 理事 松本允吉 朴晟來 馬應圭

實業家 成漢永 實業家 李命植 實業家 安鉉遠 有志 李鍾惠 有志 成春慶 醫師 李鍾大 實業家 金興模 實業家 尹昌奎 貨物自動車業 金俊煥 實業家 尹啓榮 有志 金龍濟

司法代書 李鍾鉉 李範桂 李丸吉 金友郎 藤內惠次 金復參 李啓永 成昌鎬

禮山郵便所長

大興郵便所長

釀造業 尹明植 李德根

大述面花川里 朴夏敎

禮山 李容世 新陽 金洪鎭 德山 白喆鉉

藍田圖章舖 鄭炯烈

禮山東旅館 金成珍

禮山 文泰興 大興 尹昇求

道會議員 成元慶 實業家 金興國 實業家 黃學柱 海東醫院長 吳道泳 穀物商 尹敬龍 實業家 李應圭 香泉寺主持 朴淸應 有志 李範敦 有志 尹瞰求 匿名組合 共興社 有志 申宗均 鳳山有志 林承億

禮山郡廳 三木商會

有志 金溶禹 有志 林炳冀 穀物商 崔觀日 徐丙益

禮山面事務所 吾可面事務所 挿橋面事務所 古德面事務所 鳳山面事務所 大述面事務所 新陽面事務所 大興面事務所 光時面事務所 新岩面事務所 應峰面事務所 禮山公立農業學校 禮山公立普通學校 挿橋公立普通學校 光時公立普通學校 新岩公立普通學校 古德公立普通學校 吾可公立普通學校 新陽公立普通學校 大述公立普通學校 大興公立普通學校 德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鳳山面馬橋里 有志 宋必憲

德山 修德寺 宋滿公

有志 魚在秉

新岩面桂村里 有志 李榮基

大興 有志 李益浩

吾可面月谷里 張錫九

禮山邑 三和商店 梁昇煥

朝鮮料理 太西館

吾可面新石里 朴應祥

忠南農事試驗場 主任 金寬侯

古德面大川里 釀造業 松井駒藏

禮山面新禮院 申鉉九

吾可面元泉里 權寧涉

禮山金融組合 大興金融組合 禮山金融組合長 崔圭錫

挿橋株式會社運送店

三省醫院長 鄭海碩 實業家 張錫暉 實業家 朴性敦

朝鮮料理 常春園

穀物商 權泰鉉 穀物商 朴昺鉉

紹介版發行에際하야

禮山支局長 朴相瞰

新聞의地方紹介版은 多少라도 그地方의發展上裨益하는바가 잇서야할것은 勿論이다. 그럼으로써本支局으로서 今般우리地方紹介版을 發行함에際하야는 거우히此點에留意하야 禮山地方의沿革과 및 敎育、產業、人物其他名勝古蹟等에 對하야 比較的正確且明瞭히 紹介하야보랴努力한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最初의企圖는 各方面에亘한 調査資料의不備、紙面의局限等으로因하야 그完璧을期치못하게되엿슴이 遺憾이나 此點에對하야는 今後에잇서 그補塡을期할날이 잇슬것을自警하며 于先今番調査蒐集된 資料로써 禮山地方紹介의 實務를다하야 볼뿐이다

그런데、우리禮山地方은 忠南西北部에在한 產業上의重要地域으로서 京南鐵道의 開通以來로 더욱 새로운發展氣運을齎來케되어 湖西一部의 雄都로巨然히存在하야 將來할 모든施設及發展階段을向하야 健全한步調를 옮기게되엿슴은 厳然한 事實이며 또한 禮山地方의發展休戚에 留意努力하는 모든人士의 看過치못할일을느낀다. 그리하야 이번紹介版을 發行케됨도 우리禮山地方의 一般人士로하야금 禮山地方發展上 모든方面의새로운情勢의推移를 正觀하고 그前途의展望에잇서 그再認識의必要를感하는 微衷에서임을 이에率直히 告白하는바이다.

그리고 今般우리地方의 發展을祝하시는 有志人士諸賢의 深大한厚意와援助를 蒙하야 本紹介의任을 다하게되엇슴을길이 感謝하오며 本支局으로서는 이에報告키爲하야 今後로더욱 우리地方에나타난 새로운事實의 報道와및民衆의 代辯的任務에 努力할것을굿게決心하는바이다 앞으로今番紹介를 契機로 禮山地方發展上에 多少라도새로운氣運을 招來하는바잇다면 本支局無上의光榮이며 또한 幸甚의至한바일것이다

以上은 紹介版發行에際하야 本支局所懷의一端과 및企願하는바의 概要를 略述한바이다

地方發展向上에 直間接重大意義

禮山郡守 鄭雲成

今般 朝鮮日報 禮山支局에서 禮山地方紹介版을 刊行함에對하야 禮山人士와 吾人은 滿腔의祝意를表하다. 貴報가重疊한 波瀾을 거듭하다가 革新 續刊한지不久함에不拘하고 社會期待에 相符하야 貴報와親分이깁흔 此際貴支局의 偉大한努力으로 如此한雄圖를 成就케됨은 貴支局發展을爲하야 慶賀할바이며 더욱 報導의任務를 다한다는 것보다禮山地方發展向上에 直接 間接으로重大한 意義가잇슴을 深謝不已하는바이다 今後더욱言論의公正과 時事의正確을 期하야서 民衆의忠實한벗이되며 貴支局의 益益發展됨을 祝賀하야마지안는바이다

禮山……은昔日의孤山縣 今日忠南產業의中樞地

將來할大禮山의行進過程은如是

位置

禮山郡은 忠淸南道의 西北部에在하야 總面積三十五方里一二요 東은公州、牙山郡에南은靑陽에、西는洪城、瑞山郡에北은唐津、牙山郡에接하얏다

地勢

地勢는大槪 山脈이連亘하야 그中東部郡界인 五兄弟山、西部郡界인伽倻山、南部郡界인鳳首山을 骨子로하야 山岳이重疊하얏고 郡의中央을 北流하는 無限川、揷橋川의二流가有하야 其流域은 所謂禮山平野로地味肥沃하다

沿革

禮山郡은 烏山又는 鳥山縣이라稱하야 百濟時에烏山을 金烏山下에建하얏고 新羅朝에至하야禮山으로改하야 任城郡(元大興郡)의 領縣이되엿다가 高麗太祖二年에禮山이라改稱하고 顯宗九年에更히天安府에屬하야 監務를置하다。李朝太宗十三年에 再次禮山縣이라稱하야縣監을置하얏고建陽元年에縣을廢하야 郡으로改하야 郡守를置하다 日韓倂合후 郡守를置하고 大正三年에 大興、德山郡을倂合하야 禮山郡이라改稱하얏다

郡勢

本禮山郡은面洞里를廢合하야禮山、大述、新陽、光時、大興、膺峰、揷橋、德山、鳳山、古德、新岩、吾可의 十二面이되어 百七十五個里를 包括하고 今日에至하다 그리고 現在總戶數約一萬九千이요 人口는十萬一千餘名인바 農家戶數一萬五千戶로本郡全戶數의約八割이며 다음商工業及公務其他業者가 合二割假量이다

敎育

本郡의 敎育機關은 尙今完全을期하엿다하기 難하나 本郡唯一의 中等機關인 公立農校(元忠南農校)를爲始하야 普校十、尋常小學校二、幼稚園一、蠶業傳習所一이有하야 普校는 鳳岑、鳳山兩個面을除하고는 全郡一面一校의實施를 보게된지 이미오래이다 各校의由來와近況을 略紹하면如左

公立農校 大正十二年에公州로부터 移轉되어歷史가深遠한셈이라 旣히十九回의卒業生을 내엇는바 現在學級五、敎員一三人、生徒二一一人、校長은鮫島一二氏

禮山普校 明治四十五年開校 學級一三 敎員一四人 生徒七四六人 校長은池邊保氏

大興普校 明治四十四年開校 學級六 敎員七 生徒二六二人 校長은龜澤峻氏

德山普校 大正元年開校 學級六 敎員七人 生徒二六二人 校長은森山俊郎氏

古德普校 大正十一年開校、學級六 敎員七人 生徒二七九人 校長은木島義行氏

吾可普校 大正十一年開校、學級六 敎員七人 生徒三一六人 校長은吉田熊治氏

新陽普校 大正十二年開校、學級四 敎員四人 生徒二六六人 校長은趙基鳳氏

光時普校 大正十三年開校、學級三 敎員四人 生徒一九〇人 校長은高山和三郎氏

揷橋普校 昭和四年開校 學級二 敎員二人 生徒一四〇人 校長은廣瀨庄小郞氏

新岩普校 昭和三年開校 學級二 敎員二人 生徒一一五人 校長은田中實留氏

大述普校 昭和六年開校 學級二 敎員二 生徒一一七人 校長은井上武氏

禮山小校 明治四十一年開校 學級三 敎員三人 生徒一〇一人、校長은濱出秋藏氏

新禮院小校 大正元年開校 學級一、敎員一人、生徒三人 校長은稻月巽氏

新明幼稚園 昭和三年六月十日設立 學級二 敎員一人 兒童一九人 園長은金鍾燮氏

蠶業傳習所 昭和七年設立 學級一 敎員一人 生徒一七人――인바 此外에 郡內各面에散在한書堂數三六이요兒童數三一九人으로 從來儒林敎育의面影을 維持하는一方經濟及 距離關係等으로因한學校敎育의不及하는點을 補充하고잇다

◇地方[illegible]來에推薦한白松은 秋史金正喜氏의手植으로 其先塋下에 잇는것이다

產業

禮山郡은 無限川 揷橋川의沃野를占하야 米穀의產出이最多한바 年產出高가 十一萬四千餘石에 達하며 그다음麥四萬六千石 大豆二萬六千石의順序이며 其外에 小豆 綠豆 粟蜀黍等雜穀도 多數產出한다。그리고 副食作物로 甘藷 馬鈴薯等을產하며 果實은 苹果三 五四一貫 梨二、〇八六貫葡萄、一一二貫을產한다。陸地棉은 大述、新陽面에서 多數產出하는바 本年부터는 當局奬勵에依하야郡內各面에普及되어本秋收穫는昨年의產出高六七人、七〇三斤의倍以上을產할수잇슬것이다

本郡農民의副業으로 第一盛旺한것은 養蠶과製叺두가지인바 養蠶은戶數七千餘戶 收繭量二千八百石에達하며 製叺은戶數六千餘戶 生產量三十六萬餘枚이다 그리고 畜牛生產一千三百餘頭 林產額五一、五四八圓이며 工產으로 生絲三一七九五瓩價格三〇五、一〇六圓이 最多한것이며 그다음 棉布、菓子、莞草筵、繩、酒類、麵類、족기、洋服、陶器等도 多數產出한다

交通、金融及其他

◇交通 本郡의交通은 天安公州禮山線의二等道路가 郡의中央을 貫通하얏고洪城線及 唐津線及禮山瑞山線과禮山靑陽線의 三等道路가有하야 郡內各面에 自動車事業이發達할수잇스며 京南鐵道가 禮山平野를 貫通하야 多數한乘客을 吐呑하며揷橋川及無限川下流에는汽船과 帆船의出入이不絕하야米穀과海產物이多數히集散하고잇다

◇金融機關으로는 朝鮮人만의 經營으로된 湖西銀行本店과 東一銀行支店과및 禮山、大興、古德三個所에 金融組合이 有한바 東銀支店은 名實共히 金融機關다운 唯一한存在로 預金高四百四十餘萬圓 貸出高六百八十萬圓 爲替高一百六十餘萬圓의 多額에達하며 金組로는 禮山金組의 預金高十七萬圓 貸出高二十二萬圓이 最多하고 그다음古德金組 大興金組의順序인바 禮山大興古德三個組合을 合하야도 預金高三十二萬圓 貸出高五十七萬圓에 不過하야 東銀支店이 禮山金融界의 王座를占하고잇슴은 알수잇다하겟다 그리고 禮山、大興、揷橋三個所에 郵便所가有하야 通信의迅速을 期하고잇스며 三個所合計貯金高는 四十二萬圓 爲替高八百二十餘萬圓이다

◇醫療機關으로는 私設醫院이 四個所 病院一個所 醫科一個所를合하야 醫師一名 會社로는 忠南製絲株式會社 忠南電氣株式會社 禮山釀造株式會社 運送株式會社及 吾可牧場等이有한바 其中忠南製絲株式會社는 全혀우리의손으로된것으로 禮山에잇서 異彩를發하는것인바 工場은 바로 禮山驛前에在하야 大正十五年創立으로 建坪一千四百坪 資本金六十萬圓 絹絲生產額三十二萬圓에 達한다고한다 이에吾等은 此禮山唯一의現代的工業機關의 發展을深祝하는同時에 社會의꾸준한支持가잇기를 바란다

◇市場은 禮山、新禮院、光時、大興、揷橋、德山、大川七個所가有하야 市日마다 農產物及水產物、織物、畜類等이 多數交易集散하고잇는바 그開市日을示하면 다음과갓다(市日은陰曆)
禮山市―五日十日 新禮院市―三日八日 光時市―三日八日 大興市―四日九日 揷橋市―二日七日 德山市―四日九日 大川市―三日八日

◇金鑛은四個所가有한바 光時面大峰山金鑛은 相當히有名하며 禮山、金谷、大興金鑛은 그것만은못하나 四處共히 將來에相當히發展할可望이 有하다

以上으로써 禮山郡의過去와 現在狀態를總括的으로 大槪 紹介한바이어니와 다음에그 將來의展望을 試하야보기로한다

◇全州專賣支局禮山出張所 大正十一年四月十三日禮山에全州專賣支局大田出張所禮山派出所가新設되어 煙草收納等事務를開始한바 大正十三年四月一日全州專賣支局禮山出張所로昇格되얏바 現在職員二十八人 管轄區域八郡 販賣所十個所 耕作組合二個所에 葉煙草收納取扱所四個所를有하고 煙草耕作區域四郡十六個面三十六個里 耕作人員 四千六百四人 總面積六百十二町八反步 生產量二十六萬貫 賠償金二十一萬圓 年販賣高八十萬圓에達한다고한다

古蹟과名勝

百濟王山城과 大興郡의舊址

大興市의西方에는 鳳首山城이잇다 距今約一千年前 百濟王이이山城에 臨時駐蹕한적도잇서 城壁이甚히堅固하얏섯스나 그후에唐의蘇定方이 大軍을率하고 이城을攻擊하얏슴으로 百濟王은드듸어 對敵지못하야 城을棄하고扶餘에歸하얏다 現今에도城址가尙存하야城名은 任存城이라稱한다

그리고 大興面은 元大興郡으로歷代의守令方伯이多하얏고 慈善家가 輩出하얏섯다 그리하야 數多한碑石이 邑內에散在하얏는바 現面長李舜圭氏가 이를風雨에失됨을憂慮하야 多大한經費로써 二十八個의 不朽碑를 同面上中數道路邊에 收集하야 順次羅立하얏는바 이는近方에드믄 存在일뿐안이라 歷史的參考資料로서 考古學者의 만흔注意를끌고잇다 그리고 面의東方에 맑은無限川이 흘너 古城의落日을照映하는 實로興味깁흔바이서 山紫水明한 古邑의情調가 흡으고잇다

感吳國의古都

古德面大川市는 山川이秀麗하고 沃野가連亘한곳으로 傳說에往古의 一小國都라고하든바 同面長成者會氏가 多年間古蹟을探査하든一方 녯날文獻을參考한結果 비로소昔日感吳國城趾이엇던것이 發見되엇다 感吳國은 紀元二千一百四十一年馬韓武康王元年戊申에 建國하야同二千八百三十五年 百濟武寧王元年壬午에 滅亡된小國으로그後滅地는 今에縣이되어 百濟의統治下에 屬하얏더니 百濟가亡하매 今津都督府를두엇다가 다시支潯州、德豐縣、運州等으로 改稱되엇섯고 朝鮮太宗時에德山縣으로 付屬되엇고 大正三年에 古德面이되어 今日에至하얏다。大川金後山에는 感吳國古城趾가잇스며附近에는 峨嵋山、財物峯、明沙大川、九萬浦等이잇서모다明麗한古都의風景을자랑하고잇스며市外坊築洞에는三重塔、彌勒佛等이잇다。

德山溫泉

德山邑內를 隔하기西南二十餘町 德山海點線外道路邊에在하야 從來其設備가極히不完全하얏섯스나 大正十五年以來로 浴場의設備와旅館等도完備되어 浴客의便宜를圖하고잇는바 皮膚病에最히効能이有한것은 湖南屈指의名溫泉으로서 挽近浴客은漸次增加되는狀態이다

定慧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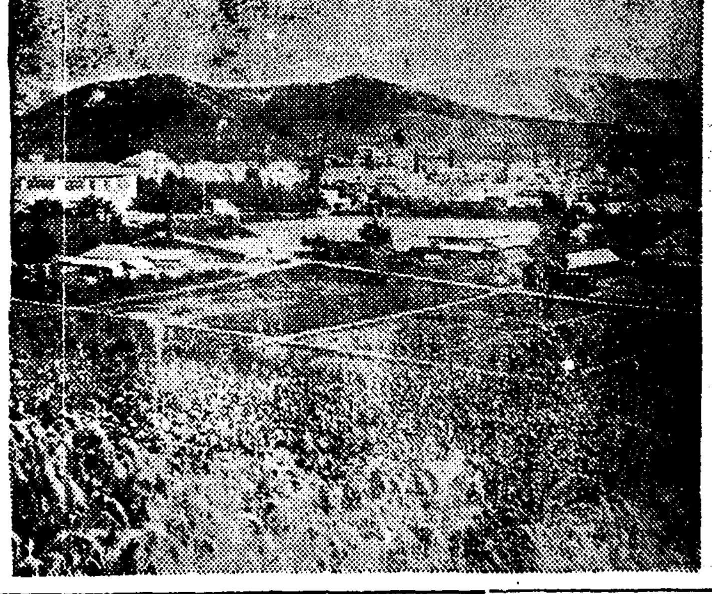
德山面修德山嶺에在한 古寺로서距今一千百年前의創建된곳으로 無數한古蹟과傳說을藏하고잇다 寺刹에登臨하면 金山에屹立한奇岩怪石과百年老松이며 原始그대로의處女林을聯想케하야 平穩한大自然에자라고 炯는密林의奇花瑤草는實로詩人墨客으로하야금讚歎을마지안케한다 그리고 眼界를轉하면 平野의 村落과 西海의碧波를 갓가히 볼수잇서마음의 淵然爽快함을늣길수잇스며 山上에至하는途中에金仙臺 金剛門 觀世音石佛 獅子窟等이잇고石間瀑泉은處處에水霧를起하야 深山幽谷의妙景을 發하고 可謂湖西第一의名勝이라할수잇스며 小金剛의稱이有하도다大抵그緣因잇슴을알수잇다하겟다

秋史의遺蹟

朝鮮名筆로일홈잇는 金秋史先生(名正喜)의遺蹟으로는 筆蹟과白松이有한바 筆蹟은만히散失되엇스나 現今數多의扁額이存하며 白松은 李朝憲宗時代에 淸國에入使하얏다가 白松一株를所持하고歸하야그會祖의墓前에植栽하얏던것인바現今樹高六丈에達하는古松으로써稀의家寶도 其子孫이繼世管理保存하고잇다

香泉寺

香泉寺는三韓古刹의一로서 金烏山支脈에在하야禮山市街에서 約七町의距離인바深邃한入口는 香泉水가逶迤潺潺하며 奇岩怪石은 別有洞天의淸新한景觀이다春風秋月의遊賞客이끗치지아니한다 傳來하는沿革에依하면 新羅僖康王二年에 普照國師가唐에入하야 九子山如滿和尙에게 問道하고石佛三千五十三位와 觀音菩薩至三尊大像을 共造하고文聖王二年에 不勝佛像을隨하야 佛像을石舟에싯고 故國에도라와서烏山縣(今禮山)北浦海岸(禮山面倉所里)에도착하엿스니 일로부터浦名을 石舟라稱하고 舟中鐵臥가徹夜不絕한故로 號名을鐘聲(一名宗敎)이라하며 金烏에一雙의飛來하야 師를北嶺溪上으로 引導한故로山名을金烏라稱하며 師가基를卜하야寺宇를構造하고 石像을奉安할새 牲牛一隻이像을 馱한지七日에 氣盡하야岩上에 蹶死한故로岩名을牛死岩이라하얏다 師가悵然히說法하고死牛를岩上에火葬한지三日後에 牛가蹶然히山으로올라가숨은고로 그곳에隱跡庵을創建하엿스며 金烏가[illegible] 蒼壁岩上에 或現或沒하며 或泉水를啄飮함으로그泉水가항상향기로운故로 泉名을香泉이라하고 泉名으로因하야 香泉寺라稱하얏다 西湖見佛寺(今文義)惠素는 國師의高弟로 內外典을博通하고別行錄을撰하야世間에傳布하니 王이 敬愛하야白金을만이賜하야 香泉寺의重書을命하니 觀音殿 香積殿 凝香閣 東西兩禪堂 香雪樓 新築하고 隱跡庵을修築하며 甘露庵 瑞雲庵 浮屠殿 西殿 祖師羅寺等다섯庵子를 計建物이 三百餘間이요居住하는僧侶가 百六十餘러니 李朝宣祖壬辰兵亂에 王이平安道로播遷하니 靈圭大師가三日을慟哭한後大將이되여 公州甲寺에서起兵하니隣邑僧軍이 모다조르니靈圭가錦山에서 戰死하매香泉寺僧兵도敗走한 關係로寺字는兵火에燒燼되고 千佛殿 極樂殿만남엇더니 李朝憲宗朝에本寺老僧慧希가寄文捐財하야 百餘間의寺宇를重建하니前日에 比하면三分一밧게안이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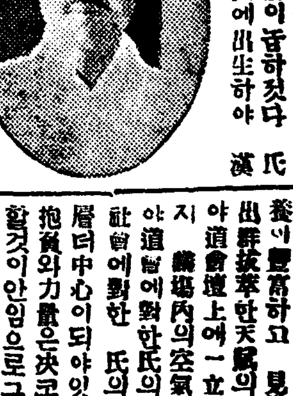


◇……禮山市街全景

各界鬪士의面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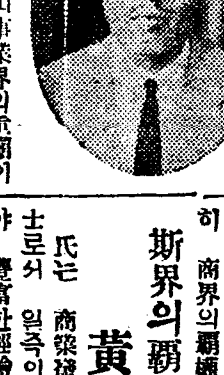
禮山이나흔人物들

社會의巨星 成元慶氏



氏는本來 禮山에서成長하엿스되 中學時代부터 學業과職業關係로 오래他地方에 居住하다가 禮山에還來한것이 四五年에不過하나 氏의存在는 빌서 禮山일을밝힐에 먼저氏를想起할만치 聲望이 놉하젓다 氏는 相當한家庭에出生하야 漢學의素養이잇고 東京에留學하야 中央大學經濟科를修了한後 元湖西銀行의 天安、禮山支店支配人이되엿다가 數年前부터 忠南製絲株式會社 專務取締役이되야 貧弱한우리地方經濟界를爲하야 奮鬪하고貢獻한바 多大하며 湖銀天安支店在職時代부터 本道會議員으로被選되야 其後繼續當選하야 四回에至한바 道內最高의得票數로 當選되야 全郡의人氣를 一身에集中한觀이 有하니 이것은 氏의獨特한政治的手腕과 人格의反映으로볼수잇다。氏는本來부터 政治에對한修養이豐富하고 見識이徹底한데 出群拔萃한天賦의 辯才가有하야 道會壇上에 一立하면 何時던지 議場內의空氣를左右하게되야 道會에對한 氏의存在는 禮山社會에對한 氏의存在보다도 一層더中心이되야잇다 그리하야 氏의抱負와力量으로그將來의活躍에 期待하는바가 적지안음으로 그將來의活躍에對한 一般社會의期待는 實로不少한바이다

事業界重鎭 李鍾憙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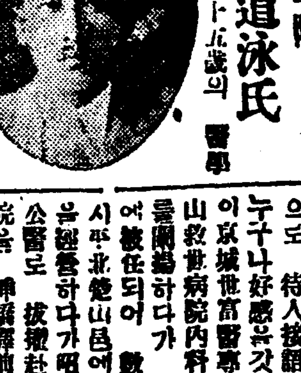
氏는 性格이溫厚하고 言論이公正하며 孝友가特殊하야 早年부터 地方人士의 敬望을바다 氏는現三十八歲의 靑年이다일즉이 普成專門學校에서修業한後 鄕里에도라와 忠南商業株式會社 常務取締役을經하야 現忠南電氣會社 取締役 禮山釀造株式會社長에 在職中이다 그리고氏는 衆望에옹숙이바되어 昨年부터今年八月까지 禮山面長으로 在職하얏스나 業務의多端에因하야 最近그職을辭하얏다 氏는 相當有產階級의人으로 地方發展을爲하야 社會事業에 獻身的으로努力하는 禮山事業界의 重鎭이다 그리고 電氣會社를創設하며 [illegible]合同하야 株式으로變更하여잇서 氏의奮鬪의功績은 크다하겟나。氏는實로穩健實行의人인즉 今後에잇서모든方面으로 더욱偉大한功績이잇슬것을밋고 期待하는바이다

活動家 安銘遠氏

氏는 現今四十三歲의 壯年으로서 曾히 師範學校를卒業한後 普校訓導로 就職하야 校長에 至하기까지 十有餘年間 敎員生活에 勤苦하야 育英事業에 多大한功績이 有하얏스며 現在禮山釀造株式會社專務取締役、禮山面協議員、禮山公普校學父兄會長等 要職을帶한 德望家이다 性格은溫厚正直하며 兼하야 堅忍不拔의 特性이有하야 모든方面으로氏의 男姿를볼수잇슨즉 만흔事業에 더욱偉大한 功績이잇기를 企待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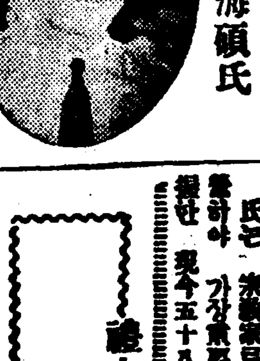
刀圭界兩明星

現代의華陀 吳道泳氏



氏는現今 三十五歲의 醫學士이다。醫學專門을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한後 總督府病院에 多年勤務하야 晝夜兼行의熱心으로 內外科를 硏究努力하다가 大正十五年에 禮山에돌아와 海東醫院을開業하얏다。氏는 博學多識한中厚强叮嚀함으로 一般의好感은勿論이며 熱熱한學究心으로 研究를繼續하고잇스며 現在에도 [illegible] 眼科에對하야는特別한技能으로 盲人을多數治療한結果 完全히光明한日月을보게되어 稱頌이藉藉하다。氏는實로 禮山刀圭界의 한異彩이며 가장信賴할만한 現代의華陀라하겟다。

民衆의慈友 鄭海碩氏



氏는現今 三十歲의靑年인바 頭腦明晳하고 溫良正直한性格으로 待人接語에親切叮嚀함은 누구나好感을갓게한다。일즉이 京城世富醫專을 卒業하고 元山救世病院內科에서 多年抱負를 闡揚하다가 江原道旌善公醫에被任되어 數年勤務하고 다시平北楚山邑에서 約一年醫院을經營하다가 昭和七年에 禮山에公醫로 拔擢赴任하야 三省醫院을 揷橋驛前에開業中이다 氏는慈善心이 豐富함으로 貧弱한 患者가有하다면 遠近을不計하고 無料診療함이 발서數百名에 達함으로 廣濟蒼生의活佛이요 慈善醫士라는稱頌이藉藉한즉 氏의將來는 자못囑望할바이다

商界重鎭의陣容

商界霸權은우리의손에

商界의長老 金興國氏

氏는今年 六十歲의老人으로 오히려름름한 壯年의氣像이잇다 二十五年의 靑年時代부터 商界에從事하야 于今努力한結果 現在는 禮山商業界의 長老가 되엇스며 店員數十人을配置한 布木雜貨等大商店을 經營中인바 昨秋에 半洋式으로 商店을新築하고 一層業務의刷新을 期하게되엇는바 禮山은勿論 靑陽 維鳩 大川 洪城等地에販賣線路를獨占한 三十餘店舖를取扱하야 前途洋洋히 商界의覇權을掌握하고잇다

斯界의霸王 黃鶴柱氏

氏는 商業發展地인松都의人士로서 일즉이商業에 從事하야 豐富한經驗과智識을兼全한 老當益壯의奮鬪家이다 距今十七年前에 禮山에來到하야 禮山商界의 沈滯微弱함을 遺憾으로生覺하고 卽時 綢緞布木及洋品雜貨商을經營하야 奮鬪를繼續中이며 現今店員數十人을配置하고 親切丁寧과信用本位를 絕對實行하며 商品의豐富함과 靑陽、洪城、維鳩、溫陽等地의 販路를 獨占하고 數十個所의 去來商店을占領한 大商店으로 模範實業家의稱이잇는氏는 實로禮山에 屈指하는 商界의霸王이라 하겟다。

고무王 李命植氏

氏는三十一歲의 中堅靑年인바 有名한商業의先進地 開城의人으로서 年齡十七歲에 商業에從事하야 今日까지 禮山고무商會를 經營中이다。店員은 十餘人으로 待客의親切은 該商店의特色이며 販路는 禮山、靑陽、唐津、瑞山各地를占領하고 特히瑞山、唐津에 支店을設置하야 每日數貨의 注文販賣에 殺到하는 中이다。氏는 商業界에잇서 多大한經驗과 信用이具備하며 恭自重하는人格者로서 고무商業의唯一한 覇權者이라 氏의 前途에는 오즉빗나는成功이잇슬뿐일것이다。

商界의權威 尹昌奎氏

氏는 宗敎家로서 商業을經營하야 가장 重要한商權을 掌握한 現今五十八歲의 老練한 奮鬪家이다。일즉이 面協議會員의 公職을經하얏스며 宗敎信者의 本旨로神聖한道德觀念을所持하야 淸廉謙恭한性格임으로 對人接語에好印象을 줄뿐아니라 兼하야 慈善心이豐富함으로 一般이敬愛하는바이다

氏는二十餘年前부터 商業에從事하야 禮山邑에 本店과支店二個所를配置하야 店員數十人을使用하야 業務의敏活을期하며 商品의正確함과 待客의親切함은 遠近이感歎하는바이다 그리고 隣近各郡市場에 販路를獨占하야 薄利多賣를本志로商業發展을期圖하매 一般은其德性을稱頌하며 따라서 禮山의屈指하는 大商業家로 斯界權威이氏의前途는 囑望하고잇다

金鑛王 金智泰氏

氏는寬厚謙恭하고 活潑한性格의人으로 曾히面協議員을 歷任하야 面治의功獻이多하며 一方慈善心이 豐富하야 貧窮한同胞의救濟事業은 遠近이稱頌한다 中年以來 鑛業에從事하야數十年間 苦難한바多하나 百折不屈하며 奮鬪邁進한結果 現今光時面大峰山에서 大金鑛을發現하야 鑛脈幅은十二尺 延長은四百餘間 含金量은 每袋二錢이 產出되고 鑛坑은 現狀二十餘處에 採鑛數量은 每一人十二袋以上에達하야 製鍊機는三十六馬力을使用함으로不久에百萬長者金鑛王이되리라하니禮山鑛業界에氏의잇슴은 實로미덥즉한存在인즉 그將來의成功과아울너 諸般事業에 進出하기를 期待하는바이다

篤志家 申宗埼氏

氏는二十六歲의靑年으로 性格이溫厚正直하며 慈善心이 豐富한人士이다 貧窮한同胞를救恤한일이 다나으며 [illegible] 模範靑年이라고 稱頌이 藉藉하다

貧農救濟의雙璧

大興 李範敎氏

氏는三十八歲의 中年紳士이다 活潑한性格으로 慈善事業과公益上 多大한功績이有한바 數年前同志 尹曒求氏와 提携하야 自救하자는標語下에 各其多大한巨財로써 [illegible] 給하얏는바 其主旨는貧窮한農家에 食糧農資等을無利息으로 貸與하며 生活安定을圖謀하야 自主케하자는것인바 資金은元金不拂의 趣旨로 가장低利로써 每年秋期에回收함으로 貧窮한農家가 糧食을 蓄積하고 生活이鞏固하게되어 附近貧農으로서 氏의惠澤을感激하는者―多하다 그리하야 實로前途洋洋한氏는 慈善事業家로서 만흔期待와囑望을 모으고잇다

大興 尹曒求氏

氏는現今三十五歲의 壯年으로 淸廉正直한性格과 敏活한手腕이며 豪放正當한言論의所有者이다 일즉이 面協議會員、禮山釀造株式會社監査役等의要職을經하얏고 有產階級에在하야 窮交貧族의救濟事業과 公益上의功績이多大한바 數年前부터 同志李範敎氏와한가지貧農의經濟困難에對한救濟의必要를痛感하고 巨大한資金을내여自家小作人은 勿論이요 一般貧窮한農家의 農資肥料食糧等을 供給하야 生活安定을圖하는同時에 資金回收는 若干費用을添하야 低利로回收함으로 安全한發展을 繼續하게되는者 多하다。氏는진실로 貧農救濟의事業家로서 그의將來는자못 期待되는바라하겟다。

禮山을읇흔노래 愛鄕歌

李孤山

一
東方에 웃뚝솟은 저金烏山은
솟아오는 해빗을 먼저밧아서
香泉이 흘러나린 마을에퍼비

二
鳳首山 녯城터엔 百濟녯깁고
無限川 밤낫으로 흘으는물엔
뜻만흔 선배들의 한숨을띄여비

三
龍宮의 鷄鳴峯은 일홈도조코
華岩寺 울리이는 저녁鐘소래
翁主의 놉흔節介 알입이로다

四
西海의 碧波를 손에만질듯
伽倻의 峻峯우에 노힌定善寺

五
小金剛 그일홈도 嚴傳안이비
南北으로 헤처인 禮山平野는
肥田과 沃土가 連亘해나니
것부도다 모든產業이 풍녀로다

六
달리는 京南線은 文明을실코
나날이 發達하는 烏棲와가티
明朗한 거안날을 가저오리니

七
사랑홉다 禮山의 젊은벗들아
建設의 뜨건情을 함께모아서
光明에찬 大禮山을 나아보세나

(附記、龍宮은新岩面龍宮里 俗稱龍山)

朝鮮唯一의 理學博士 李泰圭氏

氏는일즉이 禮山普校를卒業하고 京城第一高普、廣島高師를經하야 京都帝大理學部를卒業한後 昭和六年에 理學博士의學位를受하고 帝大化學研究所講師로 就任하얏다 氏는幼少時로부터 拔群의 英才가有하엿슴은아니라 不斷의努力과 鐵塊가튼 意志의 所有者엿슴으로 能히學理의 深奧한難關을突破하야 大學卒業後 年僅三十에 理博의 學位를獲得하야 世人으로하야금 驚歎케한바이엇다。氏가 歐米學者보다先進하야 觸媒作用의 機構를明示하얏슴은 學界에 特筆할바어니와 外地에在한朝鮮靑年으로서 萬丈의氣焰을吐하얏슴은 實로靑年學徒의 敬慕를獨할만한 博學의 士인즉 今後에잇서 더욱研究를 쌋허 朝鮮學界에偉大한光明을 將來하야주기―를 懇望하는바이다。

禮山의將來展望

禮山郡의將來를論하라면 于先農業의發達에 重要한觀角을 置하여야할것이다 地勢와모든本郡의情勢로보아 商工業보다도 나만天然의富源인 禮山平野의 肥沃함과 尙今開拓과改良의餘地가 頗多함에鑑하야 吾人은 農業發展에依한殷盛한 明日의禮山을發見한다 할수바이다 그러나禮山邑을中心으로한現在의商業과 製絲陶器等其他의工業도前途遼遠한發展上의 處女地를가젓슴은勿論이다

禮山市街는 山間에介在하야 宛然古邑의感이不無하나 官公署學校銀行會社及旅館等과 其他諸般施設이며 財產家의만흠으로보아初行者는자못 그內容의充實함에 驚異를늣길런지도몰은다 그리하야現在에도 市街地整理計劃이樹立되어 此의事業을進行하고잇슴으로 不遠間더욱整頓되고 美化된禮山邑을 產出하게될줄노안다 그러나邑에서禮山驛까지 二十餘町이나相距되엇슴과 邑內의 陝少함等으로―假令二十年後의 禮山邑을想像할때 現在의倍以上으로 發展케된다면 到底히現邑內에서의發展만을企望할수는업다 그럼으로이에서生하는 自然의趨勢로一部施設은 禮山驛前으로옴기게될것인가한다 하여든 禮山의將來發展의 重要性은耕地面積一千九百餘町에達하며 아즉도開拓의餘地가多한禮山平野를 中心으로한未墾地의 利用과農業改良에在하다할수잇는것인가 旣往에잇서當局으로서 忠南의江景平野에모든產業施設을注力하든시 다시禮山의廣闊한沃野의發達을企圖한다면 此에伴하야 商工業等도次次發展될것이니 京南鐵道沿邊의村落과市街는 漸次經濟的新機運을招來하게되어 將來할大禮山의 發展은期하야得할수잇슬것이다 그리고禮山地方은아즉도 朝鮮사람의勢力이外人에게만히쎄앗기지안엇는바인즉 今後로禮山及禮山平野를 中心으로 發展될商工業이나 其他모든方面으로만흔事業家의進出이잇서生產的으로보나 或地方的의우리人士에게 希望하는바이다

仁丹粉齒磨

朝

朝의齒磨는
一日의氣分을支配
한다
그러므로조흔齒磨
가必要하다!
仁丹齒磨가必要한
까닭이다

도련님、아즉齒는덜낫스나
每朝엄마가하는이丹精
健康優良兒、責任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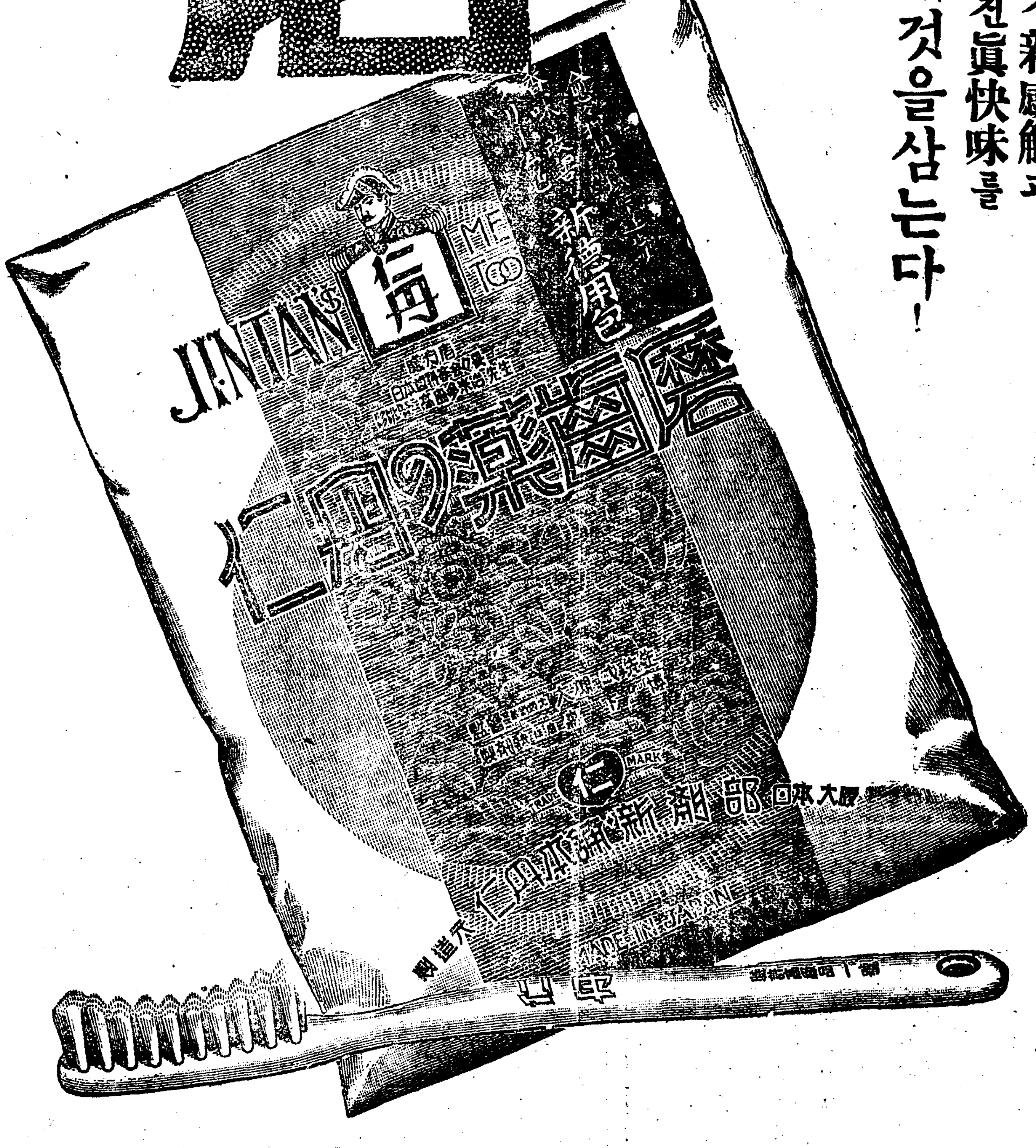
晩

밤에齒磨는
夜中의蟲齒를豫防
한다
그래서効果的인齒
磨가안이고는……
仁丹齒磨가안이고
는안된다!

장하다、착하다!
둘이닷투어寢前에양추질
어려하면어질고튼튼한兒가된다

快한感觸

魅惑的인크림色과
齒觸의부드러움야、쓴뒤의爽快함여야
仁丹齒磨야말로비로소
齒磨가가진新感觸과
齒磨가가진眞快味를
朝夕에내것을삼는다!



어린이들柔肌에도最好適
バームオイル製

仁丹石鹸

비누쓰기 상쾌하고
살결을원빗보다아름답게함!
‖快適한感觸‖温雅한芳香‖고흔泡立‖

比大形○그러나 一個十錢

仁丹齒磨 九錢・十錢・十五錢
仁丹ブラシ 十八錢・三十錢

懷中藥仁丹 本舖 森下博營業所